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종전선언과 이산가족 확대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등 분단국가로서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철도운행, 조선 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규모나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차기 정부로의 손조로운 이양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북핵 등 북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하지 못한 점 등도 불안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이행만 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성공은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남한이 미래에 부담해 야 할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이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불교계도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북경협과 불교계의 과제

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주요 골자인 공동어로구역 설치, 해주항의 민간 선박 직항로 통과 등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듯이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리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이러한 의지는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

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화합하여 남북의 신뢰회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간의 종교인의 만남을 정기화하여 종교계가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불교연구사업, 인력교류 및 불교학술회의 개최, 북한 주민의 식량

과 질병 등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불자대북협력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 남북간의 벽을 허무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남북경협협력기금조성에 불교계가 동참하여 기금확대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합리적인 재원조달방법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민간자본 유치활동에도 친불교계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녘땅에 사찰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북녘땅 사찰들의 마음을 열고 남북간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불미스런 사건 하나로는 나라가 어지럽고 무분별한 언론의 폭력에 불교계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불교계가 다시 잠입한 위용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계가 구국을 위해 항상 동참하였듯이 이번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 불교계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다.

‘종교자유’ 칼럼

31. 역사적 판결

박광서 (서경대 물리학과 교수)

강의석씨 대광고에 승소, 학내 종교자유 신장 계기 돼야

지난 10월 5일 서울지방법원(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은 “대광고는 강의석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가 종교의식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강의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2004년 6월 당시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의(현재 서울법대 3학년)가 단식농성과 1인시위를 통해 ‘예배선택권’을 달라며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한지 3년 반, 그 후 2005년 10월 7일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지 꼭 2년만이다.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종교의 교리를 주입하고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상위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요지다.

종교사학의 관행적 강제선교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데 수십 년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이유 없



대광고에 승소한 강의석씨(가운데).

이 당해온 심적 고통을 견여낸 순간이며, 가치 역사적 판결이라 할 만하다.

지난 3년은 짧으로 긴,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때로는 현실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의 안타까운 반응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원군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대광고측의 지연작전으로 두 해나 넘기면서 사건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으나, 강의의 굳은 의지와 종교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인권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더구나 예배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당시 교장과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동등으로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그동안 강제성이 없었던 대광고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대광고측이 1심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1~2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종교사학들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1974년부터 시작된 평준화 제도에만 돌린다는 점이다. ‘선지원 후 추첨’ 제도를 확대 실시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입학했으니 이의 없이 종교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선지원 후 추첨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분책으로는 학교선택의 형평성과 개종의 자유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모든 학교에겐 선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특정종교의 사립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타종교 또는 무종교인들에게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차별을 피할 길이 없다. 더 본질적으로는 설사 특정종교인으로 학교를 선택했다더라도 신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전학이라는 번거로운 방법 외에 개종의 자유가 보장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학습권 이전에 종교가 우선인 공교육기관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

제를 제기하고 있어 종교와 교육, 그리고 헌법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시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다른 아쉬움도 있다. 법원이 “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과실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에 반하는 판결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간 수백만 학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거의 교육부의 무관각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배 부장판사도 선고 직후 부연 설명을 통해 “양측이 서로 접점을 찾도록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심의 한마디로 들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구체적인 입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권·평등권·행복권 등의 시민권을 확대하는 추세다. 설문조사 결과 헌법학자들의 80% 이상이 종교사학일지라도 종교 강요는 위헌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 학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처럼 무리한 종교교육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종교가 소모적인 인권침해 공방에 휘말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행복한 삶의 동반자
깨침의 길 여는 선구자 되리

- 창간 13주년을 맞으며 -

1994년 10월 15일 불교계에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표방하며 현대불교신문이 창간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걸고 인류의 행복과 깨침의 길을 여는 선구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리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현대불교가 하려고 노력했고 언제해도 할 일이면 그 즉시 실행하려 했다. 또 기왕 하는 일이면 최고로 하고자 정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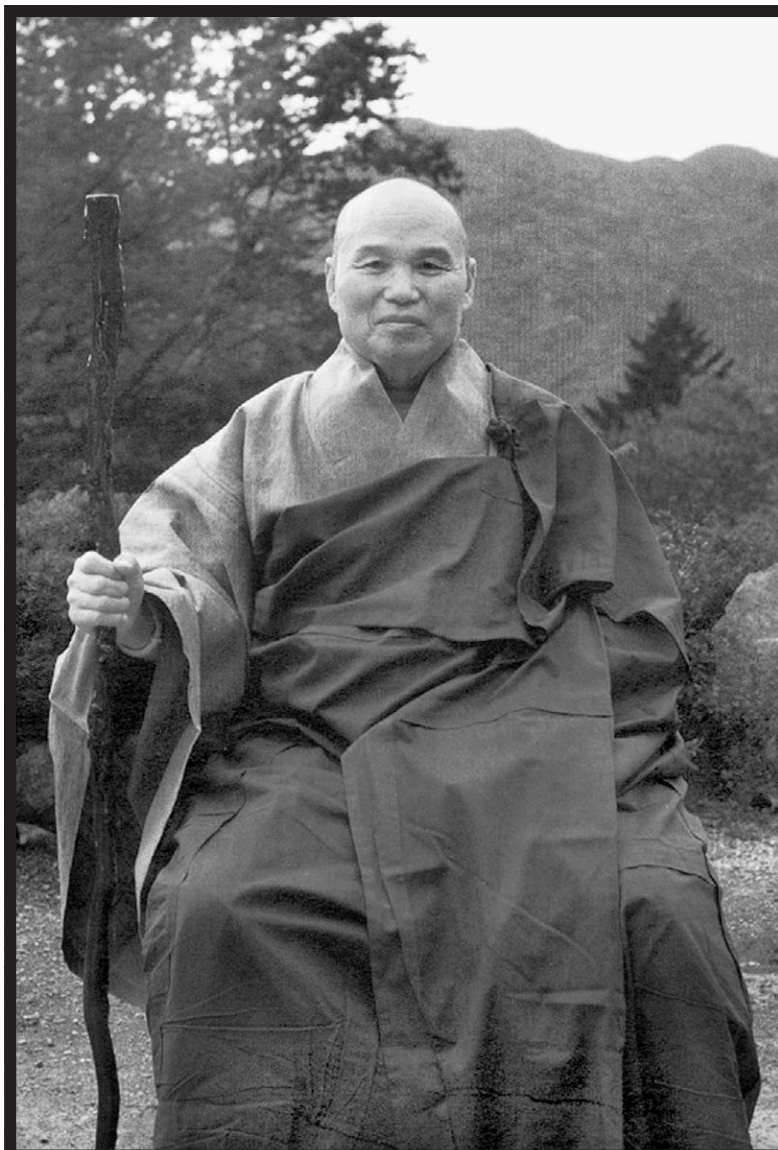
그런 다부진 각오로 시작한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언론 환경을 몇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을 들으며 불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신문에 비해 편집과 기사의 중량이 돋보였고 각종 사업을 통해 포교와 불자의 문화생활 증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때를 미리 감지하고 온라인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뉴스 매체를 운영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도 단연 앞장 서 왔다.

현대불교는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의 길을 확실하게 예감했고 그 길을 뚫는 일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였다. 지면의 한계를 온라인(인터넷)뉴스·부다피아이를 통해 뛰어 넘었고 불자들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교정하는데 앞장섰다. 그러한 선구적 역할에는 각 종단의 격려와 지원, 불자 대중의 관심과 동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각 종단과 불자대중의 권익을 위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위해 현대불교는 보다 더 크고 효율적인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 감히 말하건대, 현대불교는 지난 13년 동안 불자대중들이 보내 준 사랑을 앞선 감각과 성실한 결과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 시도 잊어 없다.

시련도 있었다. 경영 사정이 여의지 못해 폐간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물론 그 위기는 불자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에 집착했던 스스로의 탓이었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피를 줄였고 대주주의 독사 그리고 불교계 전체를 향해 참회와 새로운 다짐을 바쳤다.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선지 않았던 안 되었고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던 것이다. 위기는 기회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물겹게도, 황공스럽게도, 가슴 벅차게도 현대불교를 아끼는 사부대중의 열의가 엄청난데 크게 뜨거움을 깨치는 계기였다.

이제, 현대불교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도 충분히 다졌다. 독자와 불자대중의 사랑, 그 큰 도약대를 우리는 심분 활용할 것이다. 그 사랑은 불교계를 위한, 혼돈의 한국사회를 위한, 인류와 세계를 위한 견고한 다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현대불교는 불자만을 위한 언론이 아니다. 법 인류의 행복을 열어가는 언론이고자 한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채워주는 그릇이기 보다는 온 인류에게 깨침의 길을 열어 주는 선구자가 되고자 한다.

현재 불교계 언론으로서의 유일하게 독자운영 체계를 수립한 만큼, 보다 당당하고 보다 건설하게 불자대중의 사랑을 인류의 행복과 깨침으로 회향하는 현대불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철 대종사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2007년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는, 해방 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모인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마음의 눈을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고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못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모두 동참하시어 이 땅이 불국토의 자비와 복덕이 두루 넘치기를 바랍니다.

- 첫날(10월 23일) 마음이 불행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 세상 곳곳에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입니다.
- 둘째날(10월 24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어둠과 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부처님처럼, 소외되는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바치고자 합니다.
- 셋째날(10월 25일) 자유와 권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의 자유와 권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누려야 할 최상의 선입니다.
- 넷째날(10월 26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기도
 -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다섯째날(10월 27일) 복된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 이념의 벽,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 여섯째날(10월 28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
 - 나는 새,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 할 것 없이 자연의 온갖 생명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 일곱째날(10월 29일)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 팔만 사천 번뇌를 훌훌 털고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 ▶ 입 제 | 2007년 10월 23일(음 9월 13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 회 향 | 2007년 10월 30일(음 9월 20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 3천배 참회기도 | 2007년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큰스님 사리탑
- ▶ 추 모 재 | 2007년 10월 3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 ※참법당에서는 칠일칠야 동안 참선정진을 합니다.
- ▶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천 배씩 이어집니다.
- ▶ 준 비 물 | 상하 법복(고름 있는 것),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 ▶ 동참방법 | 1인 5만원, 동행 843174-51-013873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 ▶ 문의전화 | 백련암 (055)932-7300, 고심정사(051)464-0068~9, 장경각(02)2198-5372
 - ※부산 매일 관광버스 운행 · 출발 | 오전 6시 30분 중앙동 고심정사 앞 · 백련암 출발 | 오후 4시